

속옷미학

이 상 례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Aesthetics of Underwear

Sang-Rye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2001. 11. 30 투고)

ABSTRACT

The subject of the paper is for the study about the implication and the changes of design and functions in the underwear by the change of the times from late 19c until present time.

Researching on documents and magazine's articles, and interviewing with women older than 60s is used for the period of previous 1960s. Researching on documents, advertising, newspaper, and interviewing with the persons concerned is used for the period of after 1960s.

Analysis showed periodical change in underwear is divided into that the changes of the time is divided into 1890-1950 start to Westernization in underwear, 1950-1969 Ready made in underwear, 1970-1979 Variety in underwear, 1980-1989 Fashioning, Functioning in underwear, 1990-present Withdrawing from fundamental notion in underwear.

The time of 1890-1950 showed the biggest change in an external form in underwear. In 1950-1969, notions of beauty in underwear ultimately switch from Oriental sense to Western sense, In 70s, underwear achieved the early stage of fashioning. In 80s, Underwear became one of fashion item. In 90s, underwear achieved higher quality and variety. The basic notion of underwear was destroyed by exposing underwear.

Key words: Aesthetics of Underwear, Westernization underwear, Ready-made in underwear, Variety in underwear, Fashioning, Functioning in underwear, Withdrawing from fundamental notions in underwear.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동명정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I. 서론

인간이 몸에다 무엇인가를 두르기 시작하면서 발전되어 온 의복의 형태는 시대 및 사회 환경에 따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어 왔다. 특히 20세기에 있어 복식의 변화는 지난 세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겉옷의 변화와 함께, '내부에서 미적 표현과 무관해 보이는 속옷도 내부의 조형의지와 관련을 가지며 개인의 미적 욕구는 물론 사회의 윤리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 또는 쇠퇴'¹⁾하였다.

속옷은 대체적으로 겉옷 속에 입은 옷, 피부에 직접 닿은 옷을 일컫는데 시대와 견해에 따라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속옷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속옷이라는 개념의 시작을 거슬러 보면 최초의 의복은 한 장의 천으로 구성되어져 속옷과 겉옷이 구별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²⁾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의 중왕국 시대 이후 양가의 여자들은 튜닉을 2장 겹쳐 입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 한 장은 슈미즈로 속옷의 기초가 되었으며, 속옷은 입어서 은폐된 의복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된다.³⁾ 이러한 개념의 발생은 보다 기능적인 요인에서 시작되었으되, 현대 패션에 있어서의 속옷은 "Without foundations there can be no fashion"이라고 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⁴⁾의 말처럼, 단순히 위생상의 목적이나 추위로부터의 신체 보호의 기능을 넘어서 체형보정과 의복의 형태유지, 성적 표현 등의 장식적인 기능이 강조되는 등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독자적인 발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서양에서의 속옷은 겉옷의 발달과 함께 속옷의 수도 증가된 중세를 여성 속옷의 확립기로 보고 있으며,⁵⁾ 한국의 속옷은 고려시대 이전의 속옷은 확인할 수 있는 실물이 없으나 신라 흥덕왕 시대의 복식제도에서는 내의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어⁶⁾ 이미 속옷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고려시대의 속옷에 관한 기록은 「紫花羅來公服」중의 「淺色花羅汗衫」은 袖口에 다는 한삼과는 달리 속옷으로서의 한삼이었는데...내의를 말하는 것이었으며...⁷⁾, 또한 이때 속치마로 旋裙을

입었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무지기 치마와 같은 것이었다.⁸⁾ 이후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여자 속옷은 속적삼, 단속곳, 속바지, 속속곳, 다리속곳, 너른바지 등이 입혀졌다.

이러한 독자적인 형태의 변천과정을 거쳐오던 우리나라의 속옷에 있어 짧은 기간내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역시 서구식 속옷의 개념 및 형태가 도입되면서 이다. 특히 1894년 갑오개혁과 1895년 을미개혁은 대대적인 사회적 의식변화를 가져와 이후 궁중과 정부요인 그리고 상류층의 남녀가 양복을 입기 시작한 후 점차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여 의복이 서구화하는 시초가 되었다. 이와 함께 한복에서 양복으로 복식이 바뀌면서 그 안에 입는 속옷도 함께 서구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광복과 6.25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변화 양태를 보이던 여성복식은 특히 산업 경제 발전이 사회전면으로 부상된 1960년대를 기점으로 뚜렷이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1960년대 이후 한국 여성복식은 보편적으로 양장화하여 일상복으로 양장이 착용되고 한복은 의례복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⁹⁾ 1960년대의 젊은 세대의 서구문화 수용과 더불어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한국 여성 복식은 이후 보다 적극적인 서구 패션에 대한 수용 및 모방 시기를 거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첨단 의 서구 패션과 동시대의 감각을 향유할 뿐 아니라 독자적인 패션 트렌드의 경향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특징적인 한국복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겉옷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한국의 속옷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이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¹⁰⁾가 이루어졌을 뿐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대 복식연구에 있어 속옷 또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서양복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화기부터 20세기의 속옷 디자인을 시대별로 고찰하여, 사회발달에 따른 디자인의 변천과 기능의 변화, 그리고 그 내적 의미를 연구하려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1960년 이전 자료는 문헌과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내용 분석하고, 60세 이상 여성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196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문헌연구와 잡지 광고, 신문 기사, 실물자료 등을 통한 내용분석, 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현대 복식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현대인의 미적 가치와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에 기초자료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우리나라의 속옷에 관한 자료의 부족으로 전체 속옷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한계점으로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 20세기 서양식 속옷

현대 서양식 속옷은 언더웨어(Under Wear), 화운데이션(Foundation garment), 란제리(Lingerie) 등으로 나뉠 수 있다.

1. 언더웨어

언더웨어는 피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팬티(panties), 런닝(running shirt) 등이 해당된다.

<그림 1>은 BC 400-300년경의 브라와 브리프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여자로 현재의 브라, 팬티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 시대에 이 옷들이 속옷으로 입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BC400-300년경 운동하고 있는 여자 1000 Dessous A History of Lingerie

팬티는 허리 아래 부분에 입는 속옷으로 현재와 같은 가량이 팬티의 기원인 '드로워즈(drawers)'는 브레이즈(Braies)란 명칭으로 12세기 후반 경부터 남자들에게 속옷으로 입혀진 것이 시초이며,¹¹⁾ 여성을 위한 드로워즈는 1800년대 초에 입혀지기 시작하였으며 1851년에 브루머스(Bloomers)로 새 이름이 붙여졌다. 1900년 초반의 팬티는 면을 소재로 손바느질로 만들어졌으며 무릎에서 60-70cm 넓이었다.¹²⁾ 1920년대에 1차대전이 끝나며 허리와 가슴을 강조하지 않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등장하고 중반부터 가르송느 스타일(Garconne Style)이 유행하며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자 슈미즈와 팬티가 올인원 스타일로 연결되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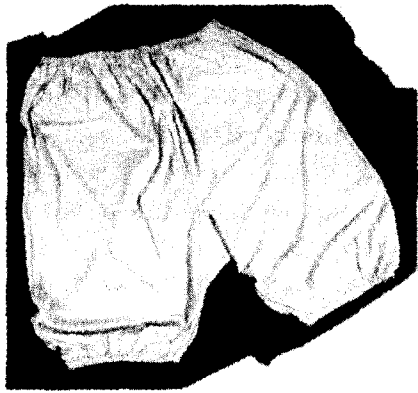


<그림 2> 1920년대 콤비네이션 란제리 A Century of Lingerie

<그림 3>은 1940년대의 팬티이다.

1930년대 후반 나일론이 공업화되어 팬티와 브리프의 소재로 쓰여졌으며 60년대에 라이크라가 소개되었다. 60년대에 여성들은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다림질이 필요없고 세탁이 손쉬운 인조섬유의 몸에 밀착되는 형태의 속옷을 선호하였다.¹³⁾

현재와 같은 밀착형 팬티는 라이크라의 개발 이후에 가능하여 실제로 그 역사가 길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허리를 약간 조여 주고 힙업을 시켜주는 거들 기능이 첨가된 팬티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그 반대의 여성용 사각팬티의 호



<그림 3> 1940년대 팬티
A Century of Lingerie

용도 높아지고 있다.

런닝은 U자나 라운드 넥라인으로 소매 없는 운동용 셔츠를 뜻하며 면메리야스 등으로 만들어지는데¹⁴⁾ 여성용은 점점 액티브 스포츠 웨어화 하는 경향으로 10대 이후의 여성들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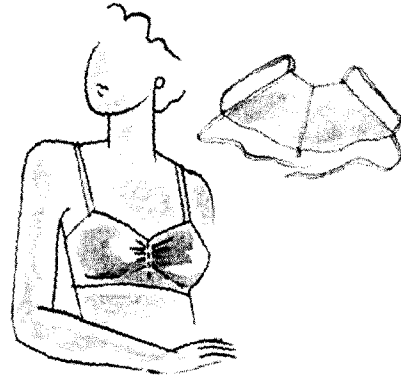
2. 화운대이선

화운대이선은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고 여성의 몸매를 바르게 가꾸어 주는 속옷으로 브래지어(브라, brassiere), 거들(girdle), 코르셋(corset), 가터벨트(garter belt), 올인원(All-in-one) 등을 말한다.

브래지어는 세기에 걸쳐 가장 기본적인 란제리의 한 종류로서 가슴끈, 가슴 성형기, 가슴 조끼 등으로 알려져 왔으며 브래지어(또는 비공식적으로는 브라)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20년대이다.¹⁵⁾ 브라는 여성의 가슴을 받쳐주고, 보다 크게 하고, 돌보이게 하며, 혹은 보다 작게 만들거나 적절히 감싸는 기능을 수행하므로써 수세대에 걸쳐 서양 여성 의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브라는 란제리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형태의 하나가 되었다.¹⁶⁾

초기의 브라는 평면형이었으며(그림 4), 20년대 케스토스(Kestos) 회사의 브라는 두장의 삼각형의 원리에 기초하여 편안한 형태의 브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고 거의 모든 여성들에게 입혀졌다.¹⁷⁾
<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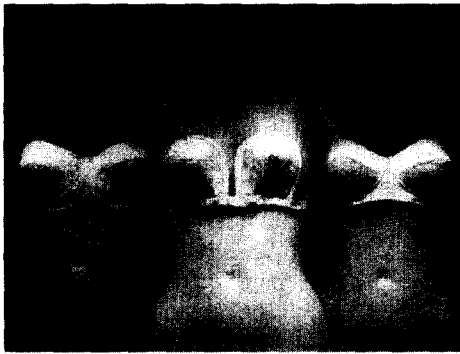
<그림 4> 초기의 브라: 평면형
A Century of Lingerie



<그림 5> 1920년대 삼각형 브라
A Century of Lingerie

50년대에는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도 바르도(Brigitte Bardot)에 의하여 둥그렇게 스티치하여 콘모양(Cone shaped)으로 만든 브라가 유행하였으며 여배우 제인 맨스필드와 마릴린 몬로 또한 모험적인 원추형 브라로 여성들의 가슴 외형에 영향을 미쳤다.¹⁸⁾<그림 6>

60년대 미국에서는, 디자이너 루디 건릭(Rudi Gernreich)이 톱플리스(topless) 수영복을 발표하며 도화선이 되어 여성운동과 저항문화 등으로 몸매를



<그림 6> 1950년대 스티치한 원추형 브라
Extreme Beauty : The Body Transformed

조이던 과거의 코르셋과 브래지어, 거들 등은 공개 화형식을 당했으며 노브라는 여성해방의 상징이 되었다.

70년대의 브라는 둥근 컵 모양으로 소재가 가벼워지고 저지나 새틴, 크레이프 드 샤인, 모슬린, 죠셋 등으로 만들어 졌으며 80년대에는 여러 가지 색의 브라가 등장하였다. 또한 티 셔츠 브라가 많이 입혀졌으며 90년대 초에는 원더브라가 유행하였다.¹⁹⁾

거들은 1920년대에 입혀진 것으로 원래 힙이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지금은 허리, 배, 힙, 허벅지 등의 문제 체형을 보완해 주는 기능성 파운데이션으로 모양에 따라 쇼트, 스탠더드, 롱, 하이 웨이스트 등과 보정 효과에 따라 하드와 소프트, 미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거들은 허벅지 아래로 처진 힙을 자연스럽게 끌어 올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배부분을 2~3중으로 처리해 가볍게 눌러주고 허벅지까지 가늘게 조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올인원은 브래지어와 웨이스트 니퍼, 팬티가 하나로 이어진 것으로 1920년대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전체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원래는 원피스 코르셋처럼 체형을 강하게 보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힙라인까지만 있는 세퍼레이트 타입, 몸매 교정 기능이 가장 강한 프론트 파스너 타입 등이 있으며 최근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 실루엣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

가터 벨트는 밴드 스타킹이 흘러내리지 않게 고리 모양의 가터가 붙은 벨트 형태의 속옷으로 팬티나 거들 위에 덧입는다. 레이스와 레이온의 혼방 소재가 가장 많으며 브래지어나 올인원과 연결된 가터 벨트 등도 나와 있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입혀 지지는 않고 있다.

3. 란제리

란제리는 화운데이션으로 가꾸어진 몸매를 겉옷에 전달하여 겉옷의 실루엣을 살려주는 속옷이었지만 요즘에는 레이스, 색상, 촉감 등으로서 여성의 아름다운 꿈을 즐기는 속옷이 되었다. 슬립, 데이웨어, 하프슬립, 캐미솔, 란주 등을 말한다

캐미솔은 여성의 스타일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윗을 가릴 정도의 짧은 속옷을 말하며 원래는 코르셋을 가리기 위해 고안되었다. 미니 팬츠 인 큐롯과 한 세트로 디자인과 색상에 따라 잠옷으로도 대치가 가능하다. 겉옷과의 마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며 땀 흡수는 물론 보온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주로 면, 레이온, 실크 등 매끄러운 소재를 많이 사용한다.

슬립은 언더웨어의 가장 나중에 입는 드레스 타입의 속옷으로 주로 스커트 차림 안에 입어 겉옷의 실루엣을 유연하게 살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브래지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브래지어 슬립을 비롯하여 몸에 딱 붙어 실루엣을 강조한 스트레치 슬립, 걸기에 편리한 플레어 슬립 등 여러가지 타입이 있으며 가장자리를 실리콘 처리해 단이 말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슬립도 있다.

Ⅲ. 개화기 이후 한국 속옷의 역사적 고찰

1. 속옷의 서양화 ; 1890 - 1959

1894년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고 복식에 있어서도 서양복식도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양장의 시작은 1899년대부터이며, 이 시기를 계기로 양장의 등장과 더불어 그 간편함을 택하여 스스로 서양복식과의 이중구조로 변천해 갔으며....(중략)...서양여성의 간편한 옷을 본따 짧아지기만 하던 저고리를 길게 하고 길기만 하던 치마를 짧게 하여 외출과 활동에 편리하도록 개량하여 입고 다녔다.²⁰⁾

조선 말기의 여자 속옷은 속적삼, 단속곳, 속바지, 속속곳, 다리속곳, 너른바지 등이 입혀졌었는데, 현대적 시각으로는 복잡하기까지 한 많은 가지 수의 속옷이 입혀졌던 이유는 한복의 외관 형태 유지를 위한 특징 외에도 유교적인 사회가치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도덕주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양에서의 현대식 속옷의 형태(브라, 팬티, 슬립, 거들 등)가 확립된 것을 1920년대로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의복의 서양화가 확산된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서양식 속옷 또한 걸옷과 함께 소개되었다.

조선시대 의복 개념으로는 획기적인 '샤쓰가 들어온 것은 1920년대부터였으며, 팬티를 입게되자 속속곳과 다리속곳을 입지 않고 팬티 위에다 단속곳, 바지를 입었다. 특히 짧은치마를 입던 신여성들은 바지 단속곳 대신 '사루마다'라고 하는 무명으로 만든 짧은 팬티를 입었고 어깨허리의 속치마를 입게 되었다. 속치마는 치마보다 그 길이가 짧았고 감은 주로 흰색의 인조견으로 해 입었다. 이 속치마는 후에 긴치마에도 입게되었다.²¹⁾<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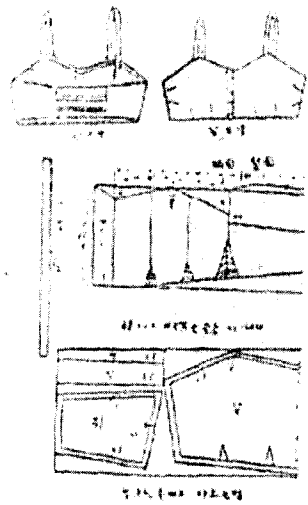
이렇게 전통복식인 한복에서 서양식 복식의 새로운 스타일로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속옷에 있어서도 서양식 속옷이 입혀지게 된다. 팬티가 제일 먼저 서양화된 것으로 보이며 속치마는 그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여 길이만 짧게 하여 양장에 입혀졌다<그림 8>과 같이 디자인이 서구화하였다.

1936년 4월 창간된 여성잡지 '여성'을 보면 30년대에는 잡지 기사 중 의복과 관련하여 양장 입는 법이나 예의에 관한 기사가 많음을 볼 수 있다. 그 중 속옷에 관련해서는 속옷의 종류, 속옷 바르게 입는 방법과 속옷 만드는 방법 등이 기사로 실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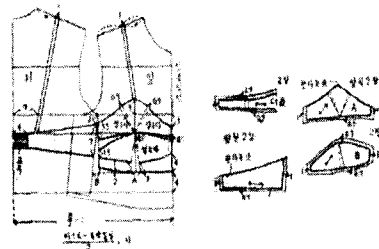
또한 속치마 만드는 방법과 속바지 만드는 방법²²⁾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서양복식을 수용하면서 걸옷에 따른 속옷 갖추어 입기에 대한 계몽

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乳카바(브라)만드는 방법²³⁾을 실고 있는데, 30년대의 여성들 대부분은 브라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부유층에서는 수입품을 착용하였다.

다음은 브라 만드는 법으로 37년 <그림 9>, 60년 <그림 10> 잡지에 소개된 제도법이다. 37년의 제도는 평면형에서 다아트를 넣어 입체감을 주고있으나 60년에는 절개하여 보다 가슴의 윤곽을 살려주고 있다.



<그림 9> 브라 만드는 방법
여성 37년 11월호



<그림 10> 브라 만드는 방법
여원 60년 7월호

“ 양장은 말할 것도 없이 속옷을 잘 입어야 스마-트한 양장이 되는데 그 순서로서 제일 먼저 콤비네슘을 입고 그 다음 코-르셀을 입고 양말을 코-르셀에 매달입니다. 그리고는 뿌르머-스를 입고 그다음 맨 나중에 스리-프를 입는 것이 순서인데... 중략”²⁴⁾

여성잡지를 보면 5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속옷 입는 방법이나 속치마 만드는 방법, 브라 만드는 방법 등이 소개되고 있는데, 양장을 가끔 입었을 지라도 코르셋은 물론이고 이때까지도 브라 착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현재는 중학생이 되면 브라를 착용하고 성장이 빠른 여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브라, 거들 등의 화운데이션을 착용하고 있지만 40년 이전 출생한 여성들은 여학교를 다녔을 지라도 거의 브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인터뷰 조사²⁵⁾한 70세 이상의 여성들은 1950년 전에는 브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며 6.25 동란 이후 브라를 처음 보았으며 입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현재 70세가 넘는 1930년 이전 출생한 여성들은 학력과 출생지역과 관계없이 거의 10대 20대에는 브라를 착용해 본 적이 없으며, 거주 지역과 학력 정도에 따라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50년 이후를 기점으로 브라를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다수의 노인들은 아직도 외출 시에만 가끔, 혹은 여름에만 잠깐씩 외출할 때만 착용하고 있다.

1950년 이전 속옷의 소재는 브라는 옥양목, 주나단 등이고 속치마는 대내복, 인조견, 지지미, 뽀베르그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교육받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집에서 손수 만들거나 수입품을 구입하여 착용하였다.

1953년 일본에서 처음 수입된 나일론은 질기고 손이 덜 간다는 장점으로 순식간에 보급되어 겹옷은 물론 속옷에까지 사용되었다.²⁶⁾ 나일론의 유행으로 겹옷 사이로 속옷이 비치게 되자 점차 속옷도 갖추어 입게 되었다. 특히 브라, 슈미즈, 코르셋, 스타킹, 팬티, 페티코트 등이 여성들의 양장을 맵시 있게 하기 위한 내의로 소개되기도 하였다.²⁷⁾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복식에서 서양 복식화 하며 속옷도 자연스럽게 서양식 속옷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일반 복식에 비하여 훨씬 천천히 진행된 것

을 볼 수 있다. 팬티와 속치마를 제외한 브라, 코르셋, 가터 벨트 등의 속옷은 극히 일부의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착용되었을 뿐으로, 일반 여성들의 속옷이 서양식으로 현대화된 것은 훨씬 후로 50년 6.25동란 이후로 보아야한다.

이 시기 동안 오랫동안 간직해 오던 우리식 속옷에서 서양식으로 바뀌며 겹겹이 입던 속옷의 종류는 간략해졌고 모양새는 간단해졌다. 인체의 선을 드러냄 없이 넉넉한 모양과 선으로 정적인 매무새를 만들던 실루엣에서 단출하며 활동적이고 동적인 매무새로 변화하였다. 어떤 뚜렷한 목표 없이 옷이 간소화되고 전통적인 것에서 차츰 서구적인 것과 혼용되며 인체 미의 기준도 서양화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2. 속옷의 기성복화 ; 1960 - 1969

우리나라에 속옷 공장이 설립된 것은 1954년 이후로 현재의 주)쌍방울은 54년 형제상회로 설립되어 주로 메리야쓰류를 생산하였으며, 주)신영 와코루는 신영염직 공업사로 54년 설립되었다. 겹옷의 기성복화 시점을 70년대 중반 이후로 보아야 하는 것에 반해 속옷은 공산품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며 60년대에 급속히 기성복화를 이루게 된다.

속옷 공장이 설립되며 고가의 수입품이나 가정에서 만들어 입던 속옷에서 급속하게 기성복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잡지에 속옷 광고가 실리기 시작한다. 지금은 속옷 광고가 여성 잡지의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처음 속옷 광고가 실린 것은 1962년²⁸⁾으로, 슬립과 스타킹광고는 63년부터 시작된다. 광고는 주로 슬립이나 네그리제, 스타킹 등이었고 속옷 관련 기사는 60년대 초에는 속옷의 종류와 입는 방법, 만드는 방법, 사이즈 고르는 방법 등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림 11>는 거들 광고로 '미용 팬스'라 하여 아래배가 들어가고, 허리가 가늘어지며, 각선미가 선명해지며 보통 팬티처럼 항상 입을 수 있으며, 몸에 꼭 맞고 촉감이 부드럽다. 입어 본 사람이 미용팬츠의 매력을 알 수 있다고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60년대 초에 거들의 수요는 많지 않았으

며, 팬티는 지금의 사각 트렁크와 같은 형이나 허리와 밑단에 고무줄을 넣은 여유가 많은 스타일이었다. <그림 12> 몸에 붙는 속옷보다는 여유가 있는 속옷을 선호하였다.

당시 노인층에서도 단속곳을 입는 사람이 드물었고²⁹⁾ 60년대 후반 미니 스커트의 유행으로 전체적으로 몸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A라인 실루엣이 주류를 이루며 팬티는 매우 짧아졌으며 브래지어가 보편화되었다.

잡지 기사 중 '속옷의 쇼핑 가이드'³⁰⁾를 보면 슬립, 브라자, 바스트 패트, 폴셋트, 팬티, 웨스트 니파, 가터 벨트, 페티코트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고 가격은 '미제 나일론 슬립 5,000-7,000환, 일산은 3,000-6,000환, 일제 감으로 국내에서 제품 한 것은 2,000-2,500환, 무명으로는 일제가 2,500환 국산은 700-1,500환, 브라자는 국산 무명제품은 700환, 일산 나일론 브라자는 1,300-2,000환 정도, 미제는 6,000환하는 고급품도 있다. 폴셋트는 전부 고무로 된 것은 3,500환, 본이 들은 무명제품은 3,000-3,500환이다. 고무제품은 입은 후의 압박감은 별로 없으나 체격의 결점이 그대로 드러나 폴셋트로서의 효과가 적으며, 고무나 나일론으로 된 것은 8,000환 정도이다.'

처음엔 나일론 속옷이 무명 보다 고가이나 59년부터 나일론이 국내 생산되어 전성기를 맞게 된다.³¹⁾

잡지에 브라 광고가 실리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후반부터로 <그림 13>은 스판텍스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높인 브라와 거들이다. 이때의 브라 디자인은 가슴을 많이 감싸며 높이가 높고 끈이 두꺼운 것을 볼 수 있다. 거들에는 아직 가터 벨트가 부착되어 있으며 처진 히프를 위로 올려주고 선을 아름답게 한다는 기능성 강조와 함께 동절기에 보온성, 하절기에는 경쾌한 기분을 준다고 특징을 들고 있다.

<그림 14>는 브라와 슬립 겸용의 디자인으로 브라를 착용하지 않는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유행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미국에서는 여성운동과 저항문화 등으로 몸매를 조이던 과거의 코르셋과 브래지어, 거들 등은 공개 화형식을 당했으며 노브라는 여성해방의 상징

이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50년 이후를 기점으로 브라를 착용하기 시작하여, 60년대에 들어 젊은 여성들의 브라 착용이 보편화된다.

기성품 속옷의 소재는 주로 면, 테트론 혼방, 스판텍스, 나일론 등이었고 팬티나 브라 등은 기성화가 이루어졌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속치마 등을 만들어 입었으며 그 소재로는 마직물, 목면 제품, 목면 소포, 면메리아스, 면지지미 등이 쓰여졌다.

60년대 우리나라에서의 속옷에 대한 개념은 간략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며 디자인보다 위생적이고 정결함을 추구하여 깨끗하면 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겉옷에 이어 속옷에 대한 근본적인 서구적 미감이 고착화된 시기이다.

3. 속옷의 다변화 ; 1970 - 1979

71년 속옷광고를 보면 '71년 패션은 개성의 주장입니다.'³²⁾라는 카피가 등장한다. 이는 60년대에 속옷제품의 기성복화가 진행되고 속옷의 서양화가 정착되면서 70년대에 들어 소비자들의 미적 추구 욕구와 단순히 신체보호를 위하여 겉옷 속에 입혀지는 속옷에서 보다 몸을 아름답게 노출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우수하고 개인의 나르시즘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속옷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섬유산업이 호황을 보이면서 반도패션, 제일모직, 코오롱 등 대기업이 수출주력에서 내수 기성복 시장에 진출하여 패션의 대중화를 촉진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속옷에 있어서도 실제로 속옷전문 메이커가 창립된지 근 15년이 지나는 동안 기술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제한적이지만 칼라의 사용이 시도되었으며 부분적이거나 단순한 패턴의 문양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흰색 위주의 단순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던 이전 제품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였다. 또한 소재의 발전이 혁혁히 이루어져 72년에는 지금은 일반적인 스킨칼라의 브라, 거들 등이 소개되고 73년에는 고무 스폰지나 부직포 패드의 단점을 제거한 피.피 패드(P.P. Pad) 브라가 개발된다.

〈그림 15〉은 72년 광고 사진으로 몸매의 선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 60년대에 비해 브라의 끈은 가늘어지고 브라 컵의 사이즈 또한 ¼으로 작아진다. 〈그림 16〉은 썸메스 부라로 90년대 이후 인기 아이템으로 정착된, 컵에 이음선이 없는 브라로 1975년 개발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행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지며 의복에 있어서도 관탈롱, 블루진 등이 유행하게 된다. 관탈롱의 유행은 하의에 밀착형 속옷을 일반화하게 되어 거들 착용이 보편화된다. 〈그림 15 참조〉

기술의 발달과 함께 66년 우리나라에 세탁기가 소개되고 70년대에 보급되면서 빨래가 손쉬워 졌고 속옷을 매일 갈아입게 되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패션화한다.〈그림 17〉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속옷을 치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것은 여성들의 의식이 점차 개방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몸을 감추는 속옷에서 보다 몸을 아름답게 노출시키는 속옷으로의 의미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밀착형 하의에 대해 금기시 하던 우리의 정서에서 세계적인 조류에 밀려 속옷의 사이즈가 몸에 맞게 작아졌으며 가슴과 허리를 강조한 서구식 미감의 디자인이 보편화된다.

4. 속옷의 패션화 및 기능화 ; 1980 - 1989

80년대는 패션의 대중화를 이룬 시기로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할부 판매가 정착되고 패션전문 기업이 탄생한다. 70년대 진출한 패션 대표 기업이 신경 안 쓴 분야에 진출하기만 하면 성공하던 시대로 속옷에 있어서도 브랜드가 다양해지고 외국과 기술 제휴한 브랜드가 선보이며 다양한 소재의 개발과 함께 기능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속옷에 있어서도 제인 폰다의 에어로빅, TV에서의 운동 프로 등의 인기로 란제리가 스포츠와 댄스의 새로운 차림새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³³⁾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는 속옷디자인에도 반영되어 80년 초 컵 하단

에 매쉬 테이프를 사용 원단의 신축력에 의해 심하게 움직여도 기어올라가지 않고 어깨끈을 V자형으로 디자인 한 다기능 브라가 시판되었으며〈그림 18〉 서포트 브라와 같이 그대로 걸어서 드러나 액티브 스포츠 웨어로 활용될수 있는 디자인이 개발되었다.

특히 80년대 중반부터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기능성을 강조한 심플한 속옷디자인이 유행하게 되어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슬로기(Sloggi) 등의 라이센스 브랜드가 인기를 끌게 된다. 특히 캘빈 클라인의 속옷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구분이 없는 같은 디자인을 내놓아 심플함과 매니쉬함을 선호하는 젊은 층에 인기를 끈다. 〈그림 19〉는 심플한 스포츠 브라와 팬티이다.

80년대 후반부터 팬티는 기존의 팬티사이즈에서 허리와 다리를 2cm 더 파준 디자인이 보편화되었으며 거들은 점점 기능성이 강조되어 팬티처럼 편안하고 가벼운 형과 보정력이 뛰어난 형으로 2중화되었다.

섬유산업 기술의 발달로 소재의 레이스 사용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며 흰색 위주의 속옷 색이 다양한 칼라로 전개된다. 미국에서는 1967년 새로운 나일론과 파우더 블루, 브러쉬 핑크, 플로랄 패턴이 팬티와 프릴 달린 나이트가운과 테디에 사용되기 시작되는데³⁴⁾ 우리나라는 흰색 일색의 속옷에서 70년대에 스킨 칼라 등이 시도되며 80년대에 들어 다양한 컬러제품이 인기를 끈다. 또한 중간착인 슬립 제품의 판매가 증가된다.

비너스에서는 일본 와콜 인간 공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여성 체위조사를 실시하여 82년 새로운 표준 규격을 책정하였다. 또한 비너스 전문점에 시착실을 마련하여 입어 본 후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83년 와이어 제품이 선보였으나 초기엔 반응이 좋지 않다가, 88년에는 U라인 브라와 형상기억 합금을 사용한 메모리 브라가 선보였다. 형상기억합금이란 니켈과 티타늄의 합금으로 어떤 모양을 일정한 온도로 20-30분간 가열하면 금속 자신이 그 모양과 온도를 기억하게 되어 변형이 되더라도 기억된 온도에 닿으면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신비의 최첨단 소재로서 탄력성이 부드럽고 뛰어나다. 와이어는 89년 국산화를 이루었다.

또한 89년 임신, 수유부를 위한 마터니티 브라, 거들이 생산된다.〈그림 20〉 수요는 있었으나 국내 생산이 되지 않아 고가의 수입품에 의존했던 임신 부용 속옷의 출시는 목적에 따른 고기능성 속옷에 대한 소비자 의식의 발현이다.

70년대에 보여지는 속옷의 밀착화와 함께 80년대 말 포스트 모던 바람이 불면서 속옷 역시 화려한 디자인에서 탈피, 자연스럽게 꾸밈없는 모드를 추구하게 되어 단순하고 보다 기능적인 활동성이 강조되는 디자인으로 속옷의 캐주얼화가 진행되었다.

5. 속옷의 탈개념화 ; 1990 - 현재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속옷 시장의 변화는 실로 엄청나, '2000년 전체 의류시장 17조 8천억원 중 속옷은 7천 4백억원 정도'³⁵⁾로 신규 브랜드가 대거 진출하였으며 외국의 라이선스 브랜드, 수입브랜드가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였다.

속옷 시장은 의외류에 반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90년대의 디자인은 화려함과 우아함, 기능성까지 고루 갖춘 다양함이 전개되고 있다.〈그림 21〉

또한 겉옷에 스판텍스가 들어간 몸에 밀착되는 디자인이 유행하면서 란제리에도 라이크라가 도입되었으며,〈그림 22〉에서와 같이 겉옷, 속옷의 개념을 탈피한 스포츠 웨어가 유행하게 된다.

80년대에는 속옷 중 중간 착인 슬립 제품이 인기를 끌었지만 90년대에는 스판텍스의 유행과 함께 슬립 종류가 줄어들고 이음새 없는 브라가 유행하였다. 75년 출시되었던 썬레스 브라가 히트 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98년에는 미니멀리즘의 유행과 함께 살색의 봉제선이 없는 누드브라가 대유행하였다.

99년 가을 공업진흥청의 사이즈 스펙(Size Spec) 체계 개편에 따라 사이즈는 언더바스트를 기준으로 75, 80, 85..등으로 정하고, 컵사이즈는 각각 2.5cm씩 A컵, B컵, C컵으로, 언더 바스트에서 바스트까지의 높이는 스펙당 7mm씩 차이가 난다.

이때까지 A컵이 우리나라 브라 판매의 9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사이즈 체계 개편이후 A컵 일변도에서 판매율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가슴과 허리를 강조하는 북고풍 유행과 함께 큰 가슴이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2001년에는 틱톡(Tick Tock) 브라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와이어를 빼어 따로 세탁이 가능하다.

또한 브라의 기능 개선이 혁혁해져, '특히 패드가 다양해져 신체같은 느낌을 강화하기 위해 실리콘, 아쿠아패드, 에어패드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쿠아패드는 물과 글리세린 등으로 이루어져 신체와 함께 움직이며 가슴을 마사지 해주는 효과도 있다. 에어패드는 공기가 들어가 아쿠아보다 가볍다. 패드를 때 낼 수 있게 한 것도 있다.'³⁶⁾

2000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 여성의 1년 평균 브라 구입 개수는 2개이고 가지고 있는 브라는 5개이다. 60-70년대는 브라를 입는 것이 전부였다면 80년대 들어 속옷도 패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90년대는 가슴을 돋보이게 하는 기능성 브라 붐이 일기 시작했다.³⁷⁾

90년대의 패션은 세기말 불안한 현실에 대한 회의로 좀 더 자극적인 패션을 추구하게 되고 성을 상품화하여 신체노출이 확대된다. 기존문화에 대한 반동은 착장의 변혁을 가져와 사적인 영역의 속옷들을 겉옷으로 드러내며 시대의 전화기를 이룬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유행의 조류와 함께, 94년 7월 광주에서 배꼽을 드러내는 옷차림(배꼽티)으로 경범죄에 기소되었으나 '배꼽노출은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진³⁸⁾ 이후 여성 속옷의 겉옷화가 진행되어 10-20대를 대상으로 갈비뼈를 겨우 덮을 정도의 러닝, 꽃무늬나 체크무늬 천으로 컵을 강조한 브래지어가 인기로 브래지어나 러닝셔츠 위에 가벼운 카디건이나 재킷을 걸치면 곤장 외출복이 될 수 있을 정도³⁹⁾로 일반화되었다.〈그림 23〉은 칼라 브라 위에 재킷을 걸친 모습이다.

속옷이었던 의복을 일상에서 그대로 겉옷으로 꺼내 입고, 속옷에 주로 사용되었던 가볍고 얇고 비치는 의복소재를 겉옷의 소재로 사용하여 신체를 감추어

<표 1> 한국속옷의 역사적 고찰

시기 구분	속옷의 서양화 1890년- 1959년	속옷의 기성복화 1960년- 1969년	속옷의 다변화 1970년- 1979년	속옷의 패션화 및 기능화 1980년- 1989년	속옷의 탈개념화 1990년- 현재
속옷 디자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식 속옷의 보급기 · 위생적 기능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 착용이 일반화 · 기본적인 디자인 · 흰색을 위주로 한 제한적인 색상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개발 · 속옷의 밀착화, 미니화, 경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라의 스포츠 브라, 와이어 브라 유행 · 남녀 구분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 유행 · 속옷의 기능성 강조, 캐주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화, 다양화, 명품화 · 기능성 브라의 유행 · 속옷의 걸옷화 · 노출의 극대화
내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겹이 갖추어 입던 우리식 속옷에서 단출하고 활동적으로 변함 · 서구식 미의식이 도입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옷에 이어 속옷에 대한 근본적인 서구적 미감이 고착화됨 · 위생과 청결함을 기본 욕구로 활동성을 주로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착형 하의에 대해 급기시 하던 우리의 정서에서 세계적인 유행의 조류에 밀려 속옷의 사이즈가 몸에 맞게 작아졌으며 가슴과 허리를 강조한 서구식 미감의 디자인이 보편화 · 단순히 입는다는 것에서 벗어나 패션화의 초기 단계로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옷이 개인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함 ·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남녀 평등의식의 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옷의 기본 개념의 파괴 · 문화적 급기의 파괴

* 출처는 뒤 <그림 출처> 참조

진 듯 드러내어 공적공간에서의 노출의 극대화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불안은 과거에의 회상을 불러 지난 세기의 일종의 여성 고문의 도구였던 코르셋 등을 더 이상 억압과 확대로서의 아닌 로맨틱시즘(Romanticism)으로의 승화로 패션에 표현하고 있다. 또한 가리고 감추고자 하는 속성에 대한 반동으로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투명한 소재에 의한 씨 쓰루 소재(see-through fabric)의 유행을 가져왔고, 속옷 같은 겉옷의 유행은 속옷 또한 소재의 다양화를 가져와 소재에 있어 니트, 데님, 벨벳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유명 디자이너들은 속옷 디자인에까지 그 디자인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⁴⁰⁾

이렇게 현대의 패션은 겉옷과 속옷이라는 구분이 무의미하게 탈개념화 되고 있으며 사적인 공간에서만 입혀지는 속옷을 하나의 패션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장 내밀한 자아를 볼 수 있게 용납함으로써 문화적 금기를 깨뜨리는 효과를 창출한 것이다.

IV. 속옷 디자인의 미학적 고찰

위생상의 목적이나 추위로부터의 신체 보호,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적인 매력 표현, 체형 보정, 의복의 형태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어진 속옷 문화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보다 복합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1894년 - 1959년 : 1894년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복식에 있어서도 서양복식을 수용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서는 겹겹이 갖추어 입던 우리식 속옷에서 뚜렷한 목적없이 서구화의 물결을 타고 서양식 속옷으로 바뀌어 나간다. 겹겹이 겹쳐 입어 풍성하고 여유롭던 실루엣은 거의 같은 형의 속치마 한 장으로 개량되어 단출하게 변하며 활동성과 편리함을 얻게된다. 외형적으로 가장 큰 변환을 보인 시기이나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변환이 이루어졌다. 주로 수작업에 의한 제작이 이루어졌고 속옷 자체에 있어 미의식의 발현 보다 기능적인 필요성에 그 존재 가치가 주어진다. 이는 1950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 속에 입혀지는 속

옷에 대해서는 그 디자인보다는 깨끗하면 된다는 의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 내뺄이 요구되었던 시절이었으므로 겉옷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속옷은 기워 입는 것이 미덕일 정도로 의복 치레에 있어 속옷은 관심 밖의 영역인 듯 하였다.

겉모습은 서구식으로 바꾸어 가고 있으나 그 속에 담기는 의식은 아직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으며 속옷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외설스러운 일이었다. 새로운 서구식 미의식이 도입된 시기이다.

1960년 - 1969년 : 6.25동란을 지나며 우리복식이 완전히 서구식으로 변화한다. 속옷에 있어서도 50년대 후반 생산공장이 설립되며 겉옷 보다 빠른 시일에 기성복화를 이루게 된다. 브라 착용이 일반화되었으며 속옷의 사이즈가 몸에 맞게 작아진다. 가슴을 강조하지 않는 우리식 옷차림에서 복식이 서양화되며 가슴과 허리를 강조하는 서구식 미감으로 이행하게 되며, 겉옷에 이어 속옷에 있어서도 서구식 미감이 고착화된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초기 기성복화에 따른 기본적인 단순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색상도 흰색을 위주로 한 제한적인 색상만이 사용되었다. 이는 80년대 후반의 심플함과 내추럴함을 위한 베이직한 디자인과 자연색의 사용과는 그 개념에 있어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식 미감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전파된 시기로서, 디자인에 있어 위생과 청결함을 기본목표로 한 편리함과 활동성을 주로 추구하였다.

1970년 - 1979년 : 70년대 젊은 세대들의 서구 문화 수용이 본격화함에 따라 서구 패션의 영향력이 대중화된 시기이다. 특히 기술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부분적이거나 단순한 패턴의 문양과 함께 다양한 칼라의 사용이 시도되었는데 이는 흰색 위주의 단순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던 이전 제품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였다. 또한 소재의 발전은 속옷의 밀착화, 미니화, 그리고 경량화를 가속화 시켰다. 특히 판탈롱이 유행하며 몸에 꼭 맞는 속옷이 입혀지게 된다. 밀착형 하의에 대해 금기시 하던 우리의 정서에서 세계적인 유행의 조류에 밀려 속옷은 더 작고 캐주얼해지며 거들이 보편화된다.

또한 속옷에 대해서도 단순히 입는 것에서 벗어나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찾게되어 패션화의 초기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속옷을 다양한 칼라와 소재의 사용으로 치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것은 여성들의 의식이 점차 개방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몸을 감추는 속옷에서 보다 몸을 아름답게 노출시키는 속옷으로의 의미 전환을 의미한다.

1980년 - 1989년 : 속옷에 대한 미의식이 보편화되고 속옷이 사회적으로 노출되어지는 시기로 중반기 이후에는 기능적인 디자인이 한 주류를 이룬 시기이다. 이미 서구식 미의 기준이 보편화되어버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속옷은 개인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패션 아이템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잡게 된다.

전반적으로 80년대에는 볼륨있는 가슴의 유행이 되돌아 왔고 와이어 브라가 유행하였으며, 제인 폰다의 에어로빅, TV에서의 운동 프로 등의 인기로 란제리는 스포츠와 댄스의 새로운 차림새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칼라의 스포츠 브라는 그대로 운동복으로 입혀진다.

또한 80년대 중반부터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패션이 확산되며 속옷도 기능성을 강조한 심플한 디자인이 유행하게 되며 캘빈 클라인, 슬로기 등의 브랜드가 인기를 끌게 된다. 여성의 속옷은 장식적이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기존의 의식에서 남성용과 디자인 구분이 없는 심플한 속옷이 인기를 끌게 되는데 이것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남녀 평등의 의식의 고취라는 80년대 사회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90년 - 현재 : 고급화, 다변화되고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보다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한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의한 자신의 과시욕과 세기말적인 사회 현상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한 속옷의 걸옷화 현상 등은 속옷의 기본 개념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90년대 초 미국의 여가수 마돈나가 장 폴 고틀에의 코르셋을 걸옷화 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사적인 영역의 속옷들을 걸옷으로 드러내며 시대의 전화기를 이루게 되는데, 유교적 가치관이 깊게 뿌리내어 있

는 우리나라에서도 세기말 불안한 현실에 대한 회의와 세계적인 조류에 밀려 좀 더 자극적인 패션을 추구하게 되고 성을 상품화하여 신체노출이 확대되며 속옷이 걸옷으로 드러나게 된다.

속옷은 더 이상 속옷으로만 그 존재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걸옷으로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아름다운 레이스로 장식된 브라와 팬티, 란제리 등 고급스러운 제품은 여성들이 선물 받고 싶어하는, 사고 싶어하는 가장 보편적인 아이템이 되었으며, 실제로 90년대 이후 고급 란제리 시장의 발전은 놀라워 고가의 수입 브랜드 위주로 속옷도 명품화 하고 있다.

또한 기능과 관계없이 커플 팬티, 야광 팬티, 비치의 속옷, 재미있는 캐릭터 속옷 등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이는 속옷이 더 이상 금기시되는 영역이 아닌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젊은이들의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서양복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화기부터 20세기의 속옷 디자인을 시대별로 고찰하여, 사회발달에 따른 디자인의 변천과 기능의 변화, 그리고 그 내적 의미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개화기 이후 한국의 속옷을 속옷의 서양화(1890 - 1959), 속옷의 기성복화(1960 - 1969), 속옷의 다변화(1970 - 1979), 속옷의 패션화 및 기능화(1980 - 1989), 속옷의 탈개념화(1990 - 현재)의 5시기로 시기 구분 할 수 있었다.

1894년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복식에 있어서도 서양복식을 수용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서는 겹겹이 갖추어 입던 우리식 속옷에서 뚜렷한 목적없이 서구화의 물결을 타고 서양식 속옷으로 바꾸어 나간다. 외형적으로 1959년까지 가장 큰 변환을 보인 시기이나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변환이 이루어진 시기로 속옷 자체에 있어 미의식의 발현 보다 기능적인 필요성에 그 존재 가치가 주어진다. 걸모습은 서구식으로 바꾸어 가고 있으나 그

속에 담기는 의식은 1960년 이전까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으며 속옷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외설스러운 일이었다. 6.25동란을 지나며 우리 복식이 완전히 서구식으로 변화한다. 서구식 미감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전파된 시기이다.

70년대에는 속옷에 대해서도 단순히 입는 것에서 벗어나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찾게되어 패션화의 초기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속옷을 다양한 칼라와 소재의 사용으로 치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것은 여성들의 의식이 점차 개방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몸을 감추는 속옷에서 보다 몸을 아름답게 노출시키는 속옷으로의 의미 전환을 의미한다.

80년대는 속옷에 대한 미의식이 보편화되고 속옷이 사회적으로 노출되어지는 시기로 중반기 이후에는 기능적인 디자인이 한 주류를 이룬 시기로 이미 서구식 미의 기준이 보편화되어버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속옷은 개인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패션 아이템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잡게 된다.

90년대에는 고급화, 다변화되고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보다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한편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 의한 자신의 파시욕과 세기말적인 사회 현상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한 속옷의 걸옷화 현상 등은 속옷의 기본 개념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속옷은 더 이상 속옷으로만 그 존재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걸으로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연구는 현대 복식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현대인의 미적 가치와 욕구를 충족 시킬수 있는 디자인 개발에 기초자료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이나 20세기 우리나라의 속옷에 관한 자료의 부족으로 전체 속옷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한계점으로 밝힌다.

참고문헌

- 1) 금 기숙,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8, p.23.
- 2) 이상례, "세기말 현상으로부터 속옷의 걸옷화 현상", 복식제35호, 1997, p.328.
- 3) Cecil Saint Laurent, 深井晃子역, 「女の 下着の 歴史」, 문화출판국, 1981, pp.7-10.
- 4) Caroline Cox, Lingerie: a Lexicon of Style, St. Martin's Press, 2000, p.8
- 5) C. Willet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 6) 속옷: 세계속옷 역사전, 2000, p.11.
- 7)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84, p.110 재인용: 김 동욱, "우리 복식에 있어서의 便服袍制의 變遷에 대하여", 동방학지 제7집
- 8) op. cit., p.163
- 9) 유수경, 「한국 여성 양장 변천사」, 일지사, 1991, p.320
- 10) 이순자, "여성속옷에 관한 연구: 16세기-20세기(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0: 김영희, "전통내의 문화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 11) C. Willet & Phillis Cunnington, op. cit., p.27
- 12) Karen W. Bressler, Karoline Newman, Gillian Proctor, A century of Lingerie, Chartwell Books, 1997, pp. 58-59
- 13) ibid., p.63
- 14) 복식사전, 라사라출판사, 1991, p.146
- 15) Karen W. Bressler, Karoline Newman, Gillian Proctor, op. cit. p.42
- 16) ibid., p.42
- 17) ibid., p.44
- 18) ibid., p.45
- 19) ibid., pp.49-51
- 20) 유희경, op. cit., pp.426-427
- 21) ibid., pp.652-653
- 22) 여성, 1937년 8월호, pp.88-89
- 23) 여성, 1937년 11월호, pp.92-93
- 24) 여성, 1940년 8월호, pp.104-106
- 25) 1925년부터 1930년 사이 출생한 여성 18명, 31년부터 39년 사이 출생한 여성 24명에게 양장을 처음 시작한 시기와 서양식 속옷을 입기 시작한 때, 초기의 속옷 디자인, 현재의 속옷 착용 등을 직접 인터뷰함
- 26) 유수경, op. cit., pp.279-280
- 27) 여성계, 1954년 3월호, p.149
- 28) 여원, 1962년 12월호, p.269
- 29) 여원, 1968년 9월호,
- 30) 여원, 1060년 7월호, p.364
- 31) 이호정, 패션 마케팅 & 패션 트렌드 분석, 교학연구사, 1996, pp.25-26
- 32) 여원 71년 12월호, 비너스 화운데이션 광고
- 33) Beatrice Fontanel, Corset et Soutiens-gorge, Editions de La Martiniere, 1992, p.146

- 34) Karen W. Bressler, Karoline Newman, Gillian Proctor, op. cit., p.135
 35) 여성복시장분석, 삼성패션연구소, 2001년
 36) "봄베, 미니, 판탈롱, 캐주얼, 다음은?", 한국일보 2001년 4월 29일 문화/생활면 기사
 37) 조선일보 2001년 9월 10일 기사
 38) 조선일보 94년 7월 20일 사회면.
 39) 조선일보 95년 5월 11일(생활) 기획, 연재.
 40) 이상례, 앞의논문, pp.325-341

그림출처

- <그림 1> BC400-300년경 운동하고 있는 여자, 1000 Dessous: A History of Lingerie
 <그림 2> 1920년대 콤비네이션 관제리, A Century of Lingerie
 <그림 3> 1940년대 팬티, A Century of Lingerie
 <그림 4> 초기의 브라: 평면형, A Century of Lingerie
 <그림 5> 1920년대 삼각형 브라, A Century of Lingerie
 <그림 6> 1950년대 스티치한 원추형 브라, 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
 <그림 7> 1910년대 개량속치마 (조우현교수 고증), 「속옷」
 <그림 8> 1930년대 속치마, 여성 37년 8월호
 <그림 9> 브라 만드는 방법, 여성 37년 11월호
 <그림 10> 브라 만드는 방법, 여원 60년 7월호
 <그림 11> 최초의 속옷 광고, 여원 62년 12월호
 <그림 12> 60년대 팬티, 여원 64년 11월호
 <그림 13> 60년대 브라와 거들, 여원 69년 7월호
 <그림 14> 60년대 브라슬립, 여원 69년 1월호
 <그림 15> 70년대 초반 브라와 거들, 여원 72년 9월호
 <그림 16> 70년대 썸레스브라, 여원 75년 9월호
 <그림 17> 70년대 후반 브라와 거들, 여원 79년 3월호
 <그림 18> 80년대 다기능브라, 여원 81년 3월호
 <그림 19> 80년대 스포츠 브라와 팬티, Lingerie: A Lexicon of Style
 <그림 20> 임신부용 브라, 여원 89년 4월호
 <그림 21> 2001년 브라와 팬티, 제임스 딘 잡지광고
 <그림 22> 90년대 스포츠 웨어 혹은 속옷, 여원 95년 4월호
 <그림 23> 속옷의 걸옷화, 2001년 Boylondon 잡지광고